창사 68년 새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남양건설

광주매일신문

개관기념 특별할인!
품격있는 도심속 프리미엄 추모공간
(재)메모리힐즈추모공원
www.memoryhills.kr

제9289호 대표전화 (062) 650 - 2000 kjdaily.com 2026년 11월 10일 화요일 (음력 10월 2일)

기본소득이 살린 시골장터…돈이 돌고 사람이 돌아왔다

곡성군 농어촌기본소득 시행 10개월

소득 무관 모든 군민에 월 15만원 지급

지역 내 카드사용액 전년比 22.1% ↑

1년새 인구 1천72명 증가 '지역 활기'

소득 안전망 구축·인구 유출 방지 한몫

인구소멸 위기 지역 대응 새 대안 부상

사용지역 제한·재원 확보 문제 등 과제

"옛날 같으면 장날이어도 손님 한두 명 보고 멍하니 앉아 있기 일쑤였는디, 요즘은 지역상품권 가진 사람들로 가득해 시장에 사람 냄새가 납니다."

지난 8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오곡면의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 장날을 맞아 시장 입구부터 시끌벅적한 흥정이 이어졌다. 상인들의 손길은 쉴 새 없이 움직였고, 장바구니를 든 주민들의 표정에는 활력이 느껴졌다.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곡성군민 전체에게 매월 15만원씩 지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10개월 차,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했던 시골 장터에 온기가 감돌고 있었다. ▶관련기사 2·8·9면

◇가게 '웃음꽃'…상권 살린 '곡성심청상품권'

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 1인당 매월 15만원(연간 180만원)씩, 전액 지역 내 소비 순환을 위한 '곡성심청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지급 방식은 유통망이 열악한 지방 도시에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직결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 30년 넘게 장사를 해온 박모(67)씨는 "기본소득이 들어오는 매월 말이나 장날이 되면 상품권 카드를 내밀며 조기나 고등어를 사 가는 손님이 확 늘었다"며 "과거엔 단돈 몇천원도 아끼려 머뭇거리던 손님들이 이제는 과일이나 건어물까지 덤으로 사 간다. 상인들 입장에선 생계가 걸린 매출이 오르니 살맛이 난다"고 웃었다.

실제 기본소득이 가져온 경제적 파급 효과는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된다. 국세청의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포함) 사용 현황에 따르면 기본소득이 본격 지급된 이후 6개월(2~7월) 동안 곡성군 내 카드 사용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1%나 급증했다. 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전국 골목상권이 찬바람을 맞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전례를 찾기 힘든 특수다.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체감하는 '삶의 버팀목'

기본소득은 특정 계층이 아닌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만큼, 전통시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반응도 연령대별로 다양했다.



비에 젖은 가을 가을비가 촉촉이 내린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노대동 물빛근린공원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붉고 노랗게 물든 메타세쿼이아 나무 사이를 걸으며 깊어가는 만추(晩秋)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대학생 이모(21)씨는 "시골에 살다 보니 교통비나 생필품 구입비가 은근히 부담이었는데, 매월 15만원씩 들어오는 기본소득 덕분에 서점이나 카페, 전통시장을 이용할 때 숨통이 트인다"며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는 일종의 최소한의 주거·생활 지원금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장을 보던 30대 주부 정모씨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매월 60만원의 지역화폐가 생기니 아이들 간식비나 식비 부담이 싹 사라졌다"며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으니 가급적 대형마트 대신 동네 마트나 전통시장을 더 찾게 된다"고 설명했다.

어르신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득 안전망이다. 80대 어르신 김모씨는 "자식들한테 용돈 달라고 손 벌리기 미안했는데, 나라와 군에서 매월 꼬박꼬박 용돈을 주니 병원도 마음 편히 가고 장날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어 고맙다"고 전했다. ▶2면에 계속 /안태호 기자

알 림

제13기 창조클럽아카데미 제14강

김상훈 광주병원장 'CEO의 몸이 곧 기업의 경쟁력'

오늘 오후 6시 L7 충장 바이 롯데호텔



광주매일신문은 전남광주 각 분야 리더에게 최고 수준의 강의와 네트워크의 장을 제공하는 '제13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14강을 10일 개최합니다.

14강은 이날 오후 6시부터 동구 L7 충장 바이 롯데호텔에서 김상훈(사진) 광주병원장을 초청해 'CEO의 몸이 곧 기업의 경쟁력 - 위고비 시대, 지방간과 콜레스테롤을 잡는 리더의 건강 전략'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김 병원장은 전남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하고 전남대학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과 호남신학교 음악과를 졸업했으며 전남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임상교수를 지내고 광주북구의사회 회장, 광주병원 진료원장으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내과 의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뱃살이 부르는 위험, 대사성 지방간과 요즘 뜨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모든 것'을 통해 대사성 지방간질환은 왜 무서울까? 비만은 의지 부족이 아닌 만성 질환인지, 위고비 정확히 알기, 내 간과 체중을 지키는 현실적인 라이프 스타일 등 진료실의 기준으로 정확히 짚어줄 예정입니다.

▲일시=2026년 11월10일(화) 오후 6시
▲장소=동구 L7 충장 바이 롯데호텔
▲강사=김상훈 광주병원장
▲주제='CEO의 몸이 곧 기업의 경쟁력'

閔시장 "군공항 무안 이전 주민투표 연내 실시해야"

회의서 "요구 다 수용하는데 억울" 언급

"필요하다면 현장 간담회도 직접 주재"

특별대책팀 구성 지시…소통·홍보 강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을 위한 특별대책팀 구성을 지시하며 해법 찾기에 직접 나섰다. 재정지원 방안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주민투표 일정이 미뤄지자 연내 투표를 목표로 관계 부서의 대응과 지역사회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민 시장은 9일 무안청사에서 열린 통합상황 점검회의에서 "군공항 무안 이전을 위한 주민투표를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황기연 행정문화부시장과 소진호 통합교통국장을 중심으로 특별대책팀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민 시장은 "무안군의 요구사항을 다 수용하고 있는데 억울하다"며 주민투표 등 후속 절차가 더 늦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필요할 경우 직접 현장 간담회를 주재해 주민들과 소통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방부와 전남광주시, 무안군은 지난 8월 무안군 망운면 일대가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지원계획의 핵심인 재정지원 방안을 놓고 내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당초 10-11월로 예상됐던 주민투표도 미뤄진 상태다.

특별대책팀은 기존 서남권 TF 등과의 역할을 조율하면서 주민 홍보와 여론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집중적으로 맡을 것으로 보인다.

민 시장이 특별대책팀 구성과 현장 간담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직접 사안을 챙긴 것은 주청사 논란과 국립의대 탈락 문제 등이 겹치면서 악화한 무안지역 여론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광주시는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 특별대책팀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군공항 이전은 무엇보다 무안 주민들의 의사 수렴이 중요하다"며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홍보를 강화해 이전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Today

70억 광주천 수질개선시설 4년째 '먹통' 3면
'콜록콜록' 입동 추위에 독감주의보 7면
남악·오룡지구 '알박기 주차' 단속 손놨나 8면

AI가 광주매일신문을 똑똑하게 읽어줍니다.

